지방선거 입지자들, 이재명 선대위 '직함 경쟁' 치열

광주 위원회만 27개…역할 주며 대선 참여 독려
공천 기여도 평가 영향력…민주당 간판 기대 효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직함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연이어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입지자들이 '이재명 효과'를 누리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선거전에 나서고 있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중앙선대위 산하 위원회는 모두 65개에 이른다. 공정성장, 신복지, 사회적 대전환 등 굵직한 의제부터 통일, 부동산, 균형발전, 외교 등 현안과 정책까지 망라돼 있다.

17개 시·도당별로도 각종 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돼 있다. 광주 선대위에만 8개의 지역위원회를 비롯해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 농어민, 다문화 등 상설위원회 12개, 교육, 기본사회, 문화, 균형발전, 안전 사회, 노동 등 특별위원회 7개 등 위원회가 27개에 달한다.

민주당은 대선 승리를 위해 최대한 많은 당원들을 확보, 선거전에 나서기 위해 많은 위원회를 조직한 후 직함과 역할을 분배하고 있다. 새해에는 복당을 추진 중인 과거 탈당자들에게도 위원회 직함을 주고 선거 운동에 나서게 할 방침이다.

이재명 후보와 지역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는 13일 복당자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원팀 선거 운동'을 이끌 계획이다.

민주당이 수많은 직함을 부여하는 만큼, 민주당원을 비롯해 외부 인사, 복당자들 조금이라도 더 큰 직함과 역할을 맡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대선에 이어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겨냥, 지역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당선으로 여겨지는 만큼 '민주당 간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앞서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대선 기여도를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방침을 밝힌 만큼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느냐가 관건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재명 마케팅'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호남 지지율을 활용하기 위해 문 대통령의 이름을 명함에 넣거나 청와대 근무 경력을 내세운 '문재인 마케팅'이 영향력을 발휘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너도나도 민주당·이재명 직함을 사용해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대선에서의 역할이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직함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김대중센터, MICE 산업 재도약 원년 선포

경쟁력 제고·전시컨벤션 유치 강화 목표
제2전시장 프로젝트 등 지역경제 활성화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김상묵)가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어가는데 앞장서기 위한 2022년 경영계획을 발표했다.

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따르면, '꿈을 실현하고 즐거움을 얻는 MICE 전당'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위기를 돌파한다.

올해 센터는 ▲MICE 사업 경쟁력 제고 ▲전시컨벤션 유치 강화 ▲고객중심 공감경영 ▲지속성장 시스템 구축 등 네 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MICE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관전시회를 국제화·대형화하며, 강소기업형 사업운영 등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인공지능(AI), 스마트팜, 스타트업 컨퍼런스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MICE 사업을 개발한다.

두 번째로 전시컨벤션 유치 강화와 관련, 대형 민간행사와 정부 순회 전시컨벤션, 국제학술대회 등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고 MICE 유치를 위한 Team Gwangju 협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컨벤션센터(제2전시장) 프로젝트는 최근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결과 충분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돼 본격적으로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에 대비한 대관시스템을 개편하고 2만㎡ 이상의 국제규모 MICE 행사 유치를 추진하는 등 미래수요 발굴을 적극 추진한다.

세 번째로 고객중심 공감경영을 위해 고객관리시스템 고도화, 소통 활성화 등 고객감동을 넘어 고객성공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공헌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다각화, MICE 인재양성 등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사적인 성과중심 조직운영을 강화하고 사업별 원가분석을 기반으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김상묵 사장은 "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임인년 새해에는 센터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코로나 위기를 돌파하고 재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면서 "올해는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오선우 기자

독서놀이 도란도란 지난 8일 오후 광주 서구문화센터에서 열린 '독서놀이 도란도란 책봄'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강사와 함께 책읽기, 감상평 쓰기 등 독서활동을 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전남 대표 복지시책 '호응'

취약계층 3만6천가구 60억 지원

전남도는 사회취약계층의 일상불편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도를 대표하는 복지시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복지기동대는 2019년 4월 도내 모든 시군과 읍면동에 설치된 순수한 민관협동 조직으로, 그동안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3만 6,000가구에 60억 원을 지원했다.

이같은 성과로 지난해는 행정안전부 주최 '제3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됐고, 국회 주관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할 우수시책이 될 정도로 모범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전남을 빛낸 올해의 시책 TOP 10 '우수' ▲도민평가단 도정 우수사업(최우수)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1위) ▲2021년 하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우수) 등에서 다수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기타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서 장애인까지 추가하고,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7억원 증액해 7,534가구에 총 3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도움을 희망하는 서비스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이·통·반장, 복지기동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길용현 기자

시, '광주청년드림수당' 참여자 모집

만 19~34세 미취업자 대상…상반기 640명

광주시는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2022년 광주청년드림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광주청년드림수당 대상은 상반기 640명, 하반기 560명 등 두 차례로 나눠 총 1,200명을 모집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80명이 늘어난 것이다.

대상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34세의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이면서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미취업청년이다. 학생이나 휴학생 및 졸업 예정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원대상자의 가구 소득, 미취업기간, 구직활동계획서를 심사해 최종 선발해 2월 16일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해당자에게는 문자를 통해 개별 통보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5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최대 250만 원의 구직활동비와 구직활동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단,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예비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청년드림수당 지급을 위한 클린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심리 지원과 구직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일대일 컨설팅을 통한 진로 설정과 함께 구직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기업탐방, 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컨설팅, 창업특강 등), 원데이 클래스·문화·커뮤니케이션 활동 등도 지원받게 된다.

청년드림수당 모집 일정 및 자격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선 시 청년정책관은 "청년드림수당 지원사업은 그동안 3,382명의 청년구직자에게 수당을 지원해 청년들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줬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도,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 인력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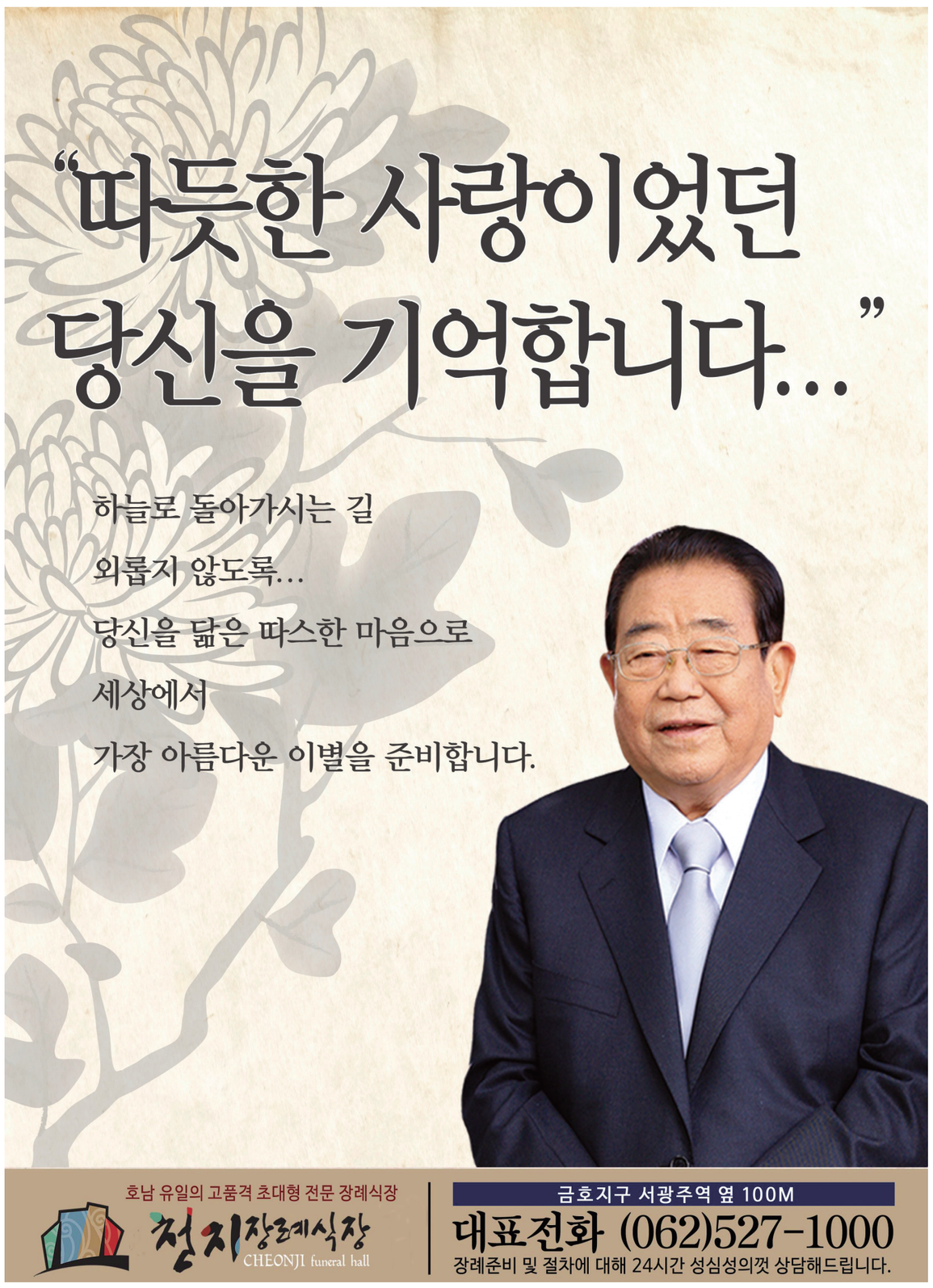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수산생물의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고 질병발생을 신속히 대응코자 공수산질병관리사를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후 수산질병관리원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민간 전문가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총 18명을 위촉할 계획으로, 예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완도, 강진, 해남, 여수, 고흥, 장흥, 목포, 영광, 진도 등 9개 지원에 배정할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다. 공수산질병관리사는 기생충 모니터링을 포함한 수산생물 진료를 비롯해 전염병 예방 및 치료, 수산생물 보건증진 및 환경위생관리 등 월 10회 이상 예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전남에서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수산질병관리원에서 근무하는 자,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한 자이다.

지원을 바랄 경우 10일부터 19일까지, 해양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로 등기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누리집(http://ofsi.j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연중 양식어가에 대한 상시 질병예찰을 실시해 전염병을 예방하고, 수산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조기대응으로 피해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